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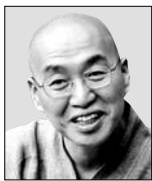
현성 스님 노산훈련소 수계식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9월 28일 노산훈련소 호교 연무사에서 3000 훈련병에게 오계를 설하고 불명을 주는 수계식을 거행했다.



인드라망 가을한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26일 신정동 양천공원에서 농도교류 마을축제인 2013 가을한마당을 개최한다.



자비명상 힐링스쿨 개강 (사)자비명상공동체 대표 마가 스님은 10월 5일부터 12주 동안 신촌 카페섬에서 청소년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힐링스쿨을 진행한다.



좋은벗들 통일체육축전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9월 29일 서울 양천구 양감중학교에서 새터민들을 위한 제 11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했다.



한미세계불교문화유산 연수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 스님은 '제3회 한미세계불교문화유산 연수단' 참가 청소년을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2)733-8985



불교영어강좌 수강생 모집 권영구 국제포교사회장은 불교 영어강좌를 위한 수강생을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 수업 기간은 10월 5일~12월 7일이다. (02)-722-2206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접수기간은 9월 27일~10월 8일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대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기간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로 불교를 주제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서 등 제한이 없다. 선정된 도서에는 대상 1종, 우수상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은 상패와 상금1000만원,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9월 27일~10월 8일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 1부(자유양식) 신청도서 종별 5부, 4권 이상 전집은 2집이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서류는 직접제출 혹은 우편접수하면 되고 접수처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통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다. (봉투에는 '불교출판문화상 신청도서'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단, 개정판, 증보판 등과 공공기관출판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기관에서 선정 지원된 도서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02)2011-1772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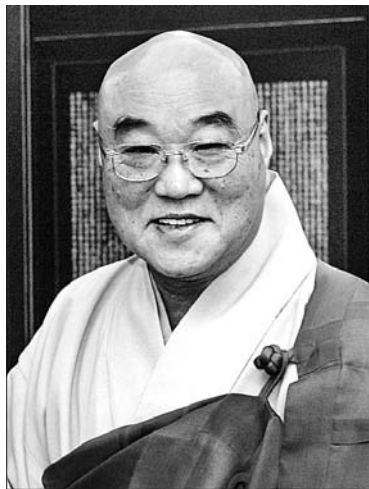
“금오문도 청정수행 가풍 잇는데 최선”

월서 스님, 법주사 조실로 추대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보는 법주사 조실에 추대됐다.

보은 법주사는 9월 21일 태전당 금오대선사 45주기 추모다례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엄수하고 금오문도회 문장에 월서, 법주사 조실에 월서, 법주사 회주에 월란 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조실로 추대된 월서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조계종을 창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종단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며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주사와 불국사, 금산사가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실로서 문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문도 기강확립과 금오문도의 청정수행 가풍을 잇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주로 추대된 월란 스님은 “문도들이 저를 회주로 추대해줬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양하겠다”며 “사행사제 중에 덕망 있는 스님을 모셔 달라”고 당부했다.

대웅보전에서 다례를 마친 스님들은 금오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들의 진영을 모셔 있는 진영각과 금오 스님 부도를 참배했다.

한편, 이날 다례제에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등 문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청담 스님 도제양성 뜻 펼칠 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동국대에 3억 기부

“은사 스님은 평소 포교와 역경, 도제양성의 3대 사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종립 동국대는 불교 인재양성의 산실입니다. 큰 스님의 뜻을 동국대에 모실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전 도제양성을 통한 인재발사를 강조한 청담 스님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동국대에 생겼다. 서울 도선사 청담문도회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9월 23일 동국대에 종합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강의실과 도서관 열람실, 옥외공원 등 교내 공간에 청담 스님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청담 스님의 여록과 법어, 행장 등이 기록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담 스님(1902~1971)은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어 조계종 통합종단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제2대 종정을 지낸 근대 선지식이다.

혜자 스님은 “은사스님의 도제양성의 뜻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문도회 차원에서 이번 기금 전달에 뜻을 모으고”고 전했다.

이날 김희옥 총장은 “청담 스님의 고귀한 뜻을 잘 받들어 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사회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두 수상자, 새로운 ‘행원’ 다짐

행원문화재단, 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제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은)은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 청장을 비롯해 양행진 고려대 교수, 동명 스님,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하춘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심사위원 등 30여 대중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예술상에 선화가 동성 스님이 수상했으며 예년과 달리 학술부문에는 특별상으로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상을 수상했다.



청담 문도회는 동국대에 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도선사주지 혜자 스님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의 기부금 전달식 장면.

주영은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22년간 534명에게 총 7억 1900여 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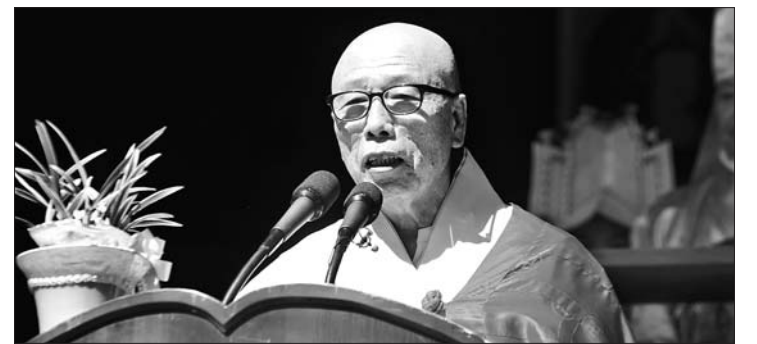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22년 전 원력으로 꾸준한 활동을 펴 온 노고가 크시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전통문화를 지켜온 이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동성 스님은 “대승보살의 원력을 빌지 않더라도 환희와 법으로 오늘 행원을 세우기 위해 항상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동춘 소장은 “법해, 원응, 응승 스님으로 이어지던 한국 차문화 전통이 저와 시대연인으로 전승됐다”며 “차문화 우수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먼 훗날 이러한 전통이 불교계로 꼭 돌아갈 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도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취임식

종단의 미래 위해 '3가지 분야 8대 운영기조' 밝혀



“선거에 나타난 종단발전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과 의지를 이어 받아 한국불교 제1종단의 위상을 구현해 나가겠다”

9월 26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25대 총무원장 취임식에 도산 스님은 태고종단의 현실과 발전에 대한 취임사를 밝혔다. 이날 도산 스님은 종도들에게 '3가지 분야, 8대 운영기조'에 따른 향후 종단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종단운영에 대해 스님은 “모든 종도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주인공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종단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린다”며 “종단의 운영을 모든 종도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총무원회의를 확대연석회의로 진행하고 총무원정 상황을 총무원장과 종도들이 공유한다 △총책사업은 종도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도 공개한다 △총무원정 권한을 교구 총무원으로 이양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대 사회포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회 조직 활성화 및 ‘교인·전법사부’를 신설한다.

도산 스님은 이어 “교육제도의 정비와 사정업무의 독립성을 보장

하여 승가전통을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으로 △인원화된 교육제도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위원장’ 직의 부활 △종단 교육 기관 지원 확대, 지방교육기관 수료자의 학위 인정 제도화 △행자 교육 전담하는 ‘정수원’ 제도를 부활 △법계시행의 규정을 엄수하여 위계질서 정립 △‘종도참여심리제도’를 시행 △종단차원의 ‘승려전문요양시설’ 설립을 목표로 할 것 등을 밝혔다.

도산 스님은 종단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부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 재정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승가의 삼보정재가 영리목적 사업의 담보로 제공되고, 매각까지 하는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사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종정 혜조스님, 도정 스님(전태종 총무원장),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강창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2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호복지관-PPG코리아 사회공헌 협약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PPG코리아(대표 권지용)와 함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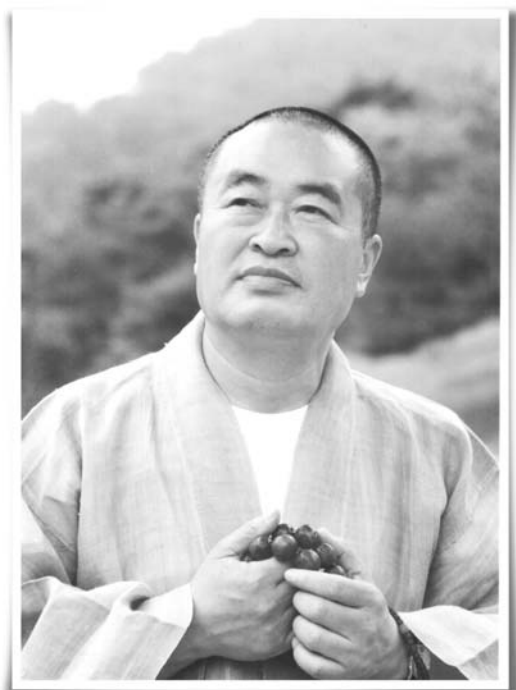
PPG코리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금 5백만원을 기탁하고 9월 28일 부산 남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벽화를 조성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교육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들과 PPG코리아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PPG 사회공헌활동에 고마움을 넘어 책임감을 느낀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용호복지관-PPG코리아 협약식 장면

삼중 스님 병환중 투혼의 금강경 대법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 마음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오신 박삼중 스님.

지금은 당신 자신이 혈액투석을 받는 병환중인데도 또 다시 원을 세우시고 불자들을 위한 『금강경』강설을 계획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말씀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바르고 쉽게 이해시켜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려는 삼중 스님의 감동과 투혼의 대법회에 불자님을 간곡히 초대합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서울 중구 종림동 보덕사 대웅전
(충정로역 5번출구 → 종림파출소, 파출소 옆길 50미터)
☎ 02)363-9893



서울 만리산 보덕사